

케빈 E. 프레데릭 박사, 발덴시아인, 강의 3, 변형

적 증인, 설교의 역할. © 2024 케빈 프레데릭과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왈도파의 역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케빈 프레데릭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변형적 증인, 설교의 역할입니다.

설교 제목은 변형적 증인이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시작하여 20절까지 진행합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지상 사역을 마치면서 내린 이 계명에서 복음의 좋은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 왔습니다. 우리가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12세기에 프랑스 리옹에서 온 발데스, 왈도라는 사람의 추종자들보다 이 명령을 더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인 집단은 없습니다.

이 설교에서 우리는 발데스가 대명령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증거가 12세기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기독교 운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 믿음의 증거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삶에서 복음의 말씀과 증거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결국 발데스 운동 또는 발데스적 후손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172년에 발데스라는 부유한 사람이 성경에 의해 자신의 부를 포기하고 평신도의 공통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을 때 다소 순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발데스는 프랑스 리옹의 사업가이자 로마 가톨릭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공부하여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열망을 느낀 월도는 교회 관리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신약 성경의 전체 구절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공부하고 기도한 후, 그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자신의 소유물을 팔고 리옹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2세기 후반 서유럽 전역에서 평신도들 사이에서 기독교 신앙의 더 깊은 의미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더 절실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와 교육을 위해 교회에 의지했지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신의 주된 소명으로 이해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교회 위계와 지식을 통제하려는 욕구는 평신도의 이러한 확인된 필요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방해가 되었습니다. 초기 중세 교회에서는 주교, 대주교, 교황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자신의 교구에서 설교를 듣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평생 단 한 번만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이 흔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교가 설교를 했을 때조차도 설교는 라틴어로 전달되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학식이 많은 1%만이 설교에서 전달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모호한 것은 교회 위계가 현상 유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그들만의 비밀로 가려졌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라틴어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특권을 가진 소수의 교회 지도자와 학자들만이 이해하도록 의도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설교의 희소성과 평신도의 라틴어 이해 부족이 합쳐져, 신의 말씀이 한 사람의 삶에 적용될 때의 의미가 일반 사람들의 삶에서 거의 또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2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본당 사제의 주요 역할은 7가지 성례를 집행하는 데 국한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공식 성례에는 세 가지 사목적 성례가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는

참회, 병자 기름 부음, 임종 의식, 두 가지 성직 성례, 여기에는 성직에 대한 서임인 성품이 포함되었고, 12세기 초에 추가된 혼인 성례, 그리고 두 가지 기본적인 성경적 성례, 세례와 성찬례, 주님의 만찬입니다.

월도 시대에는 매주 일요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회 회원이 집전하는 사제로부터 성찬의 성찬을 빵 형태로만 받았고, 포도주는 성직자와 다른 교회 관리들에게만 제공되었습니다. 성찬을 둘러싼 미사의 전례는 라틴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 미사를 거행할 때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신비롭게 예수의 몸과 피가 되었는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마술사와 아이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 온 대중화된 문구인 호쿠스 포커스 도미노쿠스가 생겨났고, 이는 오늘날에도 마법의 주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라틴어 문구인 호쿠스 코르푸 스 맘 도미니 에서 유래했습니다 .

이것은 로마 가톨릭 미사에서 루카 복음서에서 인용한 예수의 라틴어 번역으로, 이것은 내 몸입니다. Domini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이 신학적으로 훈련된 교회의 종들이 비밀리에 보관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평신도들에게 성찬례 거행의 의미에 대해 교육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1184년 이전에 가톨릭 교회 위계에 대한 발데스 문제는 목회적 문제였으며, 선교적 빈곤에 대한 매우 강력한 내적 부름과 제도적 교회의 의례적 법적 권리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발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사도적 빈곤에 대한 열렬한 열망이나 새롭게 태어난 사명감을 공유하지 않는 위계제의 관할권에 열의를 복종시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가난의 서원을 받아들이고 대중에게 모국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발데스의 이중 사역은 리옹 시의 주민들에게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곧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물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남자와 여자 추종자 그룹인 Societas Valdesiana 를 모았는데, 이는 알도를 따라 리옹 시 전역에 성경을 선포한 가난한 순회 설교자들의 사회였습니다.

월도의 설교는 로마 가톨릭 교계에서도 날카로운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리옹 주교가 월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설교에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월도는 1179년에 교황 알렉산더 3세에게 설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월도의 성실함과 소명의식에 너무 감명받아 월도를 축복하고 키스했습니다.

그러나 월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교황으로부터 주교들의 명확한 초대에 의해서만 설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리옹 주교는 완강했고 월도의 추종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와 예수의 삶에서 여성이 맡은 역할을 탐구하면서, 월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 남성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증거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에서 좋은 소식을 선포한 다른 여성들의 사례를 몇 가지 인용했습니다. 발도파가 교회법에 대해 제기한 가장 눈에 띄는 도전은 발도파의 자매인 소로 레스의 설교였습니다.

여성 설교자가 형제들보다 훨씬 적었다 하더라도, 최초의 발도파 공동체의 성적 평등은 그 자체로 원칙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가치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에서 평등했습니다.

모교회에 대한 이러한 위반을 고려하여, 월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1184년에 새로 취임한 교황 루시우스에 의해 교회에서 파문당했습니다. 월도파는 월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스스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목적과 방향에 대한 깊은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로 알려진 월도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로마 가톨릭 신앙 체계에 대한 충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 삼위일체, 그리고 신의 말씀의 권위를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과 완전한 신성을

믿었고, 예배에서 고대 사도적 신조를 사용했습니다.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은 일곱 가지 성례에 대한 믿음이나 성인 예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월도가 로마 교회가 목회의 유효한 표현으로 인정하도록 하려고 했던 두 가지 구별에는 사람들의 모국어로 설교하는 것과 남녀노소 모든 평신도가 신의 말씀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포함됩니다. 고대에 유대교는 히브리어 성경을 쓴 언어로 신성한 언어인 히브리어를 확립했고, 이를 통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신에 대한 모든 대화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아랍어를 사용하여 신앙 공동체 내에서 동일한 것을 달성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의 신성한 텍스트에 매우 공식적인 언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신앙의 신성함과 모든 거룩한 것들이 일상적인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신성한 언어 사용의 영향으로 두 신앙의 일반인들은 신과 신앙 공동체의 위계와의 모든 유형의 개인적 관계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의 공개 낭독이 히브리어로만 전달되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 주변의 평신도들은 아랍어라는 공통어를 사용했고, 거룩한 경전의 의미와 뉘앙스의 깊이는 교육받은 엘리트에게만 제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히브리어 성경을 다룰 때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말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아랍어로 가르치셨고, 일상적인 비유, 짧은 설교, 그리고 사람들의 공통 언어인 아랍어로 기억하기 쉬운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시의 일반 사람들과 모국어로 하나님에 대해 소통하신 덕분에,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신앙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필수적인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월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살던 시대에 로마 교회는 신과 신에 대한 모든 의사소통에서 공식적인 종교 언어인 라틴어를 확고히 복원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라틴어를 신성한 언어로 확립하여 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예배를 제정함으로써 로마 교회 위계는 예수가 오래 전에 무너뜨린 신과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장벽을 다시 한 번 세웠습니다. 예수 시대의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라틴어의 형식은 성경의 메시지를 리옹 주변 지역 사람들의 언어인 랑그독어와 분리하여 교육받은 엘리트층만이 성경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라틴어로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을 문맹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들이 모국어로 읽고 쓸 수 있든 없든 말입니다. 그 결과, 정식으로 훈련받은 발도파 설교자 중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맹으로 교회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발도는 당시 모국어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작동하는 필수 원칙 중 하나를 다시 확립했습니다. 즉, 듣는 청중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전달하는 월도의 복귀는 중세 기독교에 깊은 의미를 갖는 선물이었습니다. 신앙은 다시 한번 더 강렬하게 개인적인 것이 되었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전달되고 표현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렬하게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신성한 언어인 라틴어에서 프로방스의 공통 언어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당시 지역적으로 오크시타니아라고 불렸던 리옹, 프랑스 남동부, 이탈리아 북서부를 둘러싼 알프스 지역 전역에서 성경을 이해하거나 대중에게 전달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타니아의 국기는 오늘날에도 발도파와 지역적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는 많은 후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발도는 예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발도파 설교자들이 가난과 겸손한 봉사의 삶에서 본보기로 삼았다고 선포했습니다. 반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유한 성직자들은 가난의 서약을 하거나 사람들의 언어로 설교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발도파가 예수의 가르침을 모국어로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과는 달리, 주교들은 라틴어로 우화적 설교를 더 자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본보기로 삼거나 평신도에게 그 가르침을 전파할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발도파의 추종자들은 각 제자의 삶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설교의 주요 강조점으로 삼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주님의 계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또한 선포된 말씀은 설교자가 실행해야 하며, 예수의 교훈은 겸손과 빈곤의 삶을 통해 추종자들에 의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과 당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였던 많은 로마 가톨릭 주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사이에 매우 명확한 대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제들과 함께 주교들은 종종 종교 지도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술 취함과 음탕한 행동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주교들의 메시지도, 그들이 보여준 생활 방식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월도는 설교 자체가 신으로부터 온 거룩한 부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설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그 의무를 위해서만 따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집중된 부르심의 감각은 로마 교회의 수도원 복음주의에서 그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은 동료 수도사나 교회 관리가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설교를 전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182년 교황이 파문할 때까지, 월도의 동료들은 공식적인 설교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설교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 파문은 월도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부름을 고수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교황청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월도 자신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의 설교에 대한 공식적인 교회의 비난에 대해 사도행전 5장 27-30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을 정당화함으로써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권위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적 반응을 인용하면서 로마 교회와 왈도의 추종자들 사이에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을 파문하기로 한 교황의 결정에 대한 방어책으로 성경을 인용한 것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교황의 권위를 완전히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따르면, 그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대변인이었습니다. 왈도가 교황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그의 주된 의도는 자신의 부름을 충실히 따르고 평신도가 교회 생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은 1184년 파문의 결과로 프랑스 리옹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유럽 전역을 점점 더 넓어지는 범위로 쌍으로 여행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30년 동안 남부 프랑스에서 오스트리아를 거쳐 독일 일부 지역까지 넓은 지역에서 설교했습니다.

파문당한다는 것은 발도파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때까지 신앙 공동체 내에서 예배와 참여가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와 발도파 사이에 분열은 계속 커졌습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이끈 교회는 모든 발도파를 이단자로 단죄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왈도의 추종자들을 교회의 적이 되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점에서, 그들의 이단적 믿음은 뿌리째 뽑히고 완전히 제거되어야 했으며, 그들은 이단을 포기하거나 박해와 죽음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1215년부터 1230년까지 가톨릭 주교와 가톨릭 수도원의 시토회 수도사들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는 일을 처음 맡았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주교와 시토회 수도사들은 이단자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1231년 발도파의 위협에 대응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도미니크라라는 사제를 임명하여 새로 설립된 도미니코회인 오르도 프레디카토룸(Ordo Predicatorum)의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도미니코회는 로마 가톨릭 위계에 의해 발도파 이단자들과 공개 토론이나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이끈 논리와 추론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이단자들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했을 때 완전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대중은 도미니코회가 연민 없이 성경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대중은 그들을 사랑의 증거가 없는 강력한 종교적 사자로 여겼다. 평범한 사람은 발도파가 보여준 대조를 알아챘는데, 평신도들은 그들을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인 인간의 선함과 사랑의 특성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을 진정으로 표현한다고 보았다. 평신도들은 또한 발도파 목사들이 연민을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삶에 훨씬 더 명확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부유하고 독실한 주교와 처벌적인 도미니코회가 있는 로마 교회가 사회에 제공했던 겸손과 연민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알아챘다.

발도파를 가톨릭 교회 회원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토론 방식이 실패하자, 도미니코회는 곧 교황으로부터 발도파 이단자들을 박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1199년에 가톨릭 교회가 모든 발도파 재산을 소유하도록 허가했고, 이단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는 종종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250년대에 도미니코회의 주요 역할은 모든 이단자들을 기소하고 파괴하는 것이었고, 로마는 무자비한 종교재판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을 조직했습니다.

교황청은 모든 심문관에게 모든 유형의 이단자를 표준화하고 분류한 광범위한 운영 매뉴얼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적이라고 확인된 사람들을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가장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발도파 신자들에 대한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는 그 후 600년 동안 다양한 정도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도파의 부상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에 설교 방식을 바꾸도록 강요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합하고 그들의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결합하면서 로마 가톨릭은 교회에서 기능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가톨릭이 대중의 언어로 설교하는 데 새롭게 주의를 기울인 결과, 1215년에 *Predicatorium*이라는 명령이 제정되어 도미니코회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회와 베네딕토회 법령도 대중의 언어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반응은 평신도와의 관계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전체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언어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발도파와 그들의 명확한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충실한 증거에 많은 빛을 졌습니다. 발도의 추종자들은 모든 신도의 제자도의 일부로 신앙을 선포하라는 부름을 통합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발도파의 역사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케빈 프레데릭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변형적 증인, 설교의 역할입니다.